



제주대 교수 인건비 횡령 의혹 조사 착수

대학 측 진상조사팀 구성... 의혹 전반 규명 전체 기구 대상 연구원 허위 등록 조사 검토

속보=제주대학교 교수가 제자를 연구원으로 허위 등록한 뒤 인건비 명목의 제주도 보조금을 빼돌렸다는 의혹(본보 12월 8일자 4면 보도)이 제기된 가운데 대학 측과 제주도가 각각 진상 조사에 착수했다. 또 대학 측은 재발 방지를 위해 앞으로 학내 기구 전체를 대상으로 한 자체 감사에 연구원 허위 등록 조사를 포함하는 것을 검토하기로 했다.

제주대학교는 A교수의 인건비 편취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8일 총무과장을 팀장으로 한 진상조사팀을 꾸렸다. 앞으로 진상조사팀은 A교수를 상대로 제자를 연구원으로 허위 등록한 사실이 있는지, 제자에게 지급된 인건비를 받아 챙긴 적이 있는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또 A교수의 요구로 연구원으로 둔갑한 의혹을 받는 제자들도 조사

대상이다. 진상조사팀은 제자를 상대로 A교수가 연구책임자를 맡은 '해양구조물관리 취업 지원사업'에 실제로 참여한 적이 있는지, 개인계좌로 받은 인건비를 모두 혹은 일부만 교수에게 전달했는지 등을 파악할 계획이다. 제주대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A교수 등의 비위 의혹만을 규명하기 위한 단일 감사"라며 "다만 이런 방식의 인건비 수령이 관행처럼 굳어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는 만큼 앞으로 대학 기구 전체를 대상으로 한 자체감사 계획에 연구원

허위 등록 조사를 반영하는 방안을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제주도는 A교수를 상대로 조사를 벌여 범죄 혐의점이 있다고 판단되면 형사 고발할 방침이다. 한편 A교수는 제주도가 사업비 전액을 부담하는 '해양구조물관리 취업 지원사업'의 연구책임자로 2018년부터 올해 11월까지 제자들을 연구원으로 허위 등록한 뒤 이들 명의로 지급된 인건비 4400여만원을 빼돌린 의혹을 받고 있다. A교수는 문제가 불거지자 보직 사임했다.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8일 화재가 발생한 레일바이크의 모습. 제주동부소방서 제공

관광객 탄 레일바이크서 불... 4명 부상

소방당국 "화재 원인 조사 중" 전기배터리로 운행 중이던 레일바이크에서 불이나 관광객 4명이 다쳤다. 8일 제주동부소방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53분쯤 제주시 구좌읍의 한 관광시설에서 운행 중이던 레일바이크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레일바이크 업체 관계자가 화재를 인지하고 119에 신고했으며 소방당국은 장비 12대와 인원 34명을 투입해 같은 날 오후 3시10분쯤 현장에

도착, 10분 만에 화재를 진압했다. 이 불로 50대 남성 1명과 40대 여성 1명이 안면부 화상과 발목 화상 등을 입고 응급처치를 받으며 병원으로 이송됐고 50대 남성 1명과 60대 남성 1명도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부상을 입은 4명은 한 대의 레일바이크에 함께 탑승했으며, 모두 관광객인 것으로 전해졌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김도영기자 doyoung@ihalla.com

총과업 보름만에 시멘트 반입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총과업 보름 만에 8일 제주지역 시멘트 반입이 재개됐다. 제주경찰청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쯤 제주시 애월항을 통해 시멘트 2000t이 반입됐다. 화물연대 총과업 이후 제주에 시멘트가 들어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반입된 시멘트는 비노조원이 운행하는 벌크 시멘트 트레일러(BCT) 차량 3대에 실려 제주시 한림읍의 한 시멘트 생산·공급업체로 운송됐다. 제주경찰청은 애월항부터 A 업체로 가는 길목에 인력 200여 명을 배치해 화물연대 노조와 비노조 간 충돌에 대비하고 있다. 이상민기자



겨울바다 즐기는 관광객 8일 제주시 한림읍 금능해수욕장을 찾은 관광객들이 제주의 초겨울바다를 즐기고 있다. 강희만기자

'경유 1당 175원' 제주 주유소 전국 최고 마진

주말 기온 평년보다 높아

제주지방기상청은 10일 제주지역은 서해상에 위치한 기압골의 영향을 차차 받으며 아침 최저기온이 평년(4~7℃)보다 높은 7~10℃, 낮 최고 기온도 평년(11~13℃)보다 높은 14~16℃로 예상된다고 8일 밝혔다. 또 10일 오후 9시부터 11일 0시 사이 중산간 지역에 비 또는 눈이 내릴 것으로 예보됐으며 제주도해상과 남해서부서쪽만바다에는 바람이 초속 9~16m로 강하게 불고, 바다의 물결이 1.5~4.0m 높이로 높게 일어 항해하거나 조업하는 선박은 주의해야 한다. 이상민기자

도내 경유·휘발유 가격 조사 경유 93원·휘발유 30원 비싸 특정일에 동시 인하 현상도 제주도내 주유소가 전국에서 가장 높은 마진을 올리는 것으로 조사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E컨슈머 에너지지식유시장감시단과 함께 지난 10월부터 제주지역 경유 및 휘발유 가격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11월 시장분석보고서를 8일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제주지역 10~11월 주유소 마진은 경유의 경우 1당 175.53원을 기록해 전국 81.91원 대비 93.62원 비쌌다. 휘발유인 경우 1당 163.27원으로 전국 132.88원 대비 30.39원 많았다. 도내 경우 판매가격은 10~11월 전국에서 가장 높았으며, 이 중 농협 알뜰주유소가 9주 중 7주 동안 제일 높았다. 휘발유는 전국에서 서울 다음으로 비쌌으며, GS칼텍스가 9주 중 5주 동안 가장 비쌌다. 또한 경유는 국제휘발유 가격 하락 대비 가격 인하폭이 적은 것으로도 조사됐다.

특히 도내 주유소는 전국의 경유 및 휘발유 가격이 내려갈 때 보험세를 유지하다가 특정일에 다수의 주유소가 동시에 동일하게 가격을 대폭 인하하는 특징을 보였다. 지난달 17일 도내 경유 가격이 1당 54.98원 하락했을 때 도내 193개 주유소의 41%인 79개 주유소가 1당 90원을 인하했다. 이들 중 78개는 제주시에 위치했다. 같은 날 휘발유는 1당 49.28원 내렸는데, 83개 주유소(제주시 82개소, 서귀포시 1개소)가 1당 80원을 인하했다. 이태윤기자 ity9456@ihalla.com

"4·3 폼페이사 중앙위원서 즉각 해임해야"

4·3단체 공동 성명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 위원으로 4·3을 폼페이한 극우 성향 인사가 위촉된 것으로 전해지자 4·3단체가 반발하고 있다. 제주4·3연구소와 제주4·3도민연대 등은 8일 발표한 공동 성명에서 "윤석열 정부는 4·3을 부정해 온 김태훈 4·3 중앙위원을 즉각 해임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김 위원이 회장으로 몸

담았던 한반도 인권과 평화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그동안 4·3과 관련해 극우적 입장을 고수해 왔던 단체"라며 "사실상 4·3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꾀방해온 인사의 4·3 중앙위원 참여는 4·3 중앙위를 극우화로 모는 신평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20년 만에 여야 합의로 이뤄낸 4·3특별법 개정 취지를 살리고 희생자·유족과 도민들의 아픔을 해결할 수 있는 인사로 새롭게 구성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상민기자

금 투자 사기 피해금액 빼돌린 일당 실형

금 투자 사기 일당에게 대포 통장을 넘겨 범죄 수익을 가로챈 일당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강동훈 판사)은 횡령,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또 공범인

B씨에게는 징역 2년6개월이, C씨에게 징역 2년이 각각 선고됐다. A씨 등은 지인이 법인 계좌 등을 제공하면 대가를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지난 2월 주식회사를 설립한 뒤 회사 명의로 대포통장을 발급 받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이상민기자

토 지 구합니다

· 제주시 ·

구좌읍 조천읍

조건

- ① 전원주택용 부지
- ② 허가득한 사업부지
- ③ 계획관리지역

베네 건축 베네 하우스

문의: ☎ 064-723-1105

리모델링의 선두주자

濟州 리모델링

辛酉 一 祚 직원 수시모집

누수탐지·방수

누수탐지: 가스식, 청진기식 수도배관 녹물청소

신축 / 중축 / 리모델링 / 화장실 리모델링

아파트 / 단독주택 전체 리모델링 / 지붕개량 / 옥상방수 / 페인트공사 / 창문 / 도어문 / 대문 교체

블랙이장 / 싱크대 / 신발장 / 도배 / 장판 / 물당 시공 / 징크 공사

유품 정리해드립니다

책임시공, A/S견적무료

정성을 다하는 직접시공. 혼을 담은 책임시공

주소 | 제주시 진동로5길 9, 유진빌라 201호

친절 문의 **064.742.6234**

문의 **010.7599.6234**

그랜드보청기

연말연시 물가안정 사은행사

보급형, 경제형, 고급형, 프리미엄형중 선택

그랜드보청기 히트브랜드 대상!!

충전형 귀속형 보청기 / 충전형 보청기

'국민건강을 위한 상생협력제품 판매'

제주시/서귀포시 무료 방문 A/S 및 무료 청력검사

삼촌들 흔저 전화 주십시오! 기다려주세요!

〈사무실 방문시 추가 할인쿠폰 증정〉

비충전식 보청기 도내 최저가 지향

건강보험 청각장애인 지원금 및 어르신보청기 지원금 안내

NAVER에 그랜드보청기 · Q를 검색해 주세요

☎ **064-725-9275**

※ 그랜드보청기 전용 주차장 (무료주차)

서사리 사거리 북동쪽 시청방면 1층 삼검구이 서광로 225 2층 제주시버스터미널

심의번호 2007-GN1-26-0155

국제보청기프라자

무료청력검사, 휴일예약, 출장상담 환영

정부지원 최고 131만원

[111만원+20만원(4년간 5만원씩 나눠서 지급)]

보상판매

27,000원 36개월 무이자 할부

- ☑ 작은 소리도 크게 들을 수 있습니다.
- ☑ 이야기 소리를 잘 들을 수 있습니다.
- ☑ 대화를 편안하게 할 수 있습니다.
- ☑ 시끄러운 장소에서도 대화가 가능합니다.
- ☑ 소리가 왕왕 울리지 않고 잘 들을 수 있습니다.

찾아오시는 길

제주은행 / 한국병원 / 시외버스터미널 / 오리마을소 / 국제보청기 (국제기계2층) / 한라체육관 / 시내수영장

대표 **임정완**

직접수리 · 당일착용

국제보청기 ☎ 743-7175

제주시 서광로 190 (한국병원 건너편, 국제기계 2층)